

末의 作品으로 推定된다(醴泉郡廳寫眞提供)

(3) 磨崖立像·忠北 中原郡 可金面 倉洞里 江邊에는 「申位將軍畫像」이라고 부르는 如來立像이 있는 바 高四、五米라 하며 衣紋의 彫法이 飄波式으로 年代는 高麗로 推定(公博金永培氏談)

(4) 立像一軀·慶北 榮州郡 豊基面 布教堂에 運搬된 것으로서 그곳에서 約四km 地點인 靈田寺址에서 發掘되었다하며 光背는 破壞되었다고 할 뿐 未詳이다(安東郡廳安承一氏談)

(5) 坐像·月城郡 西面 新坪里(女根谷) 村落田에 現存하는 바 上下蓮花臺가 있고 頭部는 缺失되었다(洪思俊氏通信)

### 土製管의 一例

### 文 甲 洙

一九六二年六月益山郡金馬面 五金山麓 報德城址에서 土製管 多數가 出土되었다는 바 現在 全州市 多佳山房主 林鍾錫氏가 그中 三個를 收藏하고 있다. 原色은 灰黑色이나 酸化되어 大部分 褐色으로 변해졌다.

實測値는 三個가 거의 同一한데 長 六十八cm 上部圓甬內徑十一cm 外徑一三·五cm

下部圓甬內徑六·五cm 外徑八·五cm 로서 用途는 排水管으로 사용된 듯 하다.



### ◎ 文化財第一分委(十八次)

一九六二年十二月二十日 文管局에서 開催되었는데 出席委員는 金庠基 金斗鍾 李相佰 李弘植 金元龍 黃壽永과 朴文敎長官 文局長 秦課長

第四卷 第一號 通卷 三十號

(1) 國寶再指定目錄檢討……與法寺廉巨和尚浮屠의 寺名(原州)이 未審하므로 傳을 달아 稱呼키로 한다.

(2) 寶物再指定案(油印)은 各自檢討再議키로 하다. 三六七號「楊平上院寺銅鐘」(元東本願寺所在)는 樣式上 韓國鐘이 아니며 記錄과 現地證言 등에 의하여 搬出經緯가 疑心되므로 解除키로 決議하다. 이 案件에 關하여 金元龍委員의 異議가 있었고 이에 對하여 黃委員의 反論과 調査經緯가 說明되었으므로 金庠基 李弘植委員의 贊成發言이 있었다.

(3) 宗廟內 世宗大王記念館基地使用申請은 朴長官出席下에 討議되었는데 反對意見이 많았으며 앞으로 金委員長 文局長 記念會代表가 再議키로 하다.

(4) 扶餘普光寺碑를 扶餘博物館內로 移轉키로 可決

(5) 扶餘世道面 東寺里 五層石塔의 扶博移轉件은 保留키로 하다.

(6) 佛國寺駐車場施設變更(階段)申請은 可決

(7) 佛國寺禪院新築承認申請은 可決 同鐘閣(禪院側近) 一柱門(안문附近)도 可決되다.

(8) 釜山日本城使用申請(動植物園設置)可決

(9) 其他·石窟庵設計委員林泉氏佛物館辭任通報·晉州移管丹城石佛補修件(金藏庵에 保存키로 하다)·春川石塔保護欄可決·石柱關七義士墓移轉(否決)·石窟庵設計進行에 關하여 金元龍委員의 出張報告·荒山大捷碑破片(日人破碎)을 찾아 保存하자는 黃委員提議可決·奉化西部洞塔舍利發見保存經緯에 關한 黃委員報告

### ◎ 文化財委第一分委(十九次)

一九六二年十二月二十日 文管局에서 開催되었는데 出席委員는 金庠基 金斗鍾 李弘植 金元龍 金重業 黃壽永과 文局長 秦課長

(1) 寶物再指定……北韓所在寶物과 第二一號 證心寺金銅如來立像一軀·第三七二號 鐵彩白磁唐草文梅瓶은 再指定保留

(2) 史蹟再指定……北韓所在史蹟은 再指定保留·老人亭址는 調査後再指定·釜山子城臺와 蓮臺庵剛泉寺址는 解除, 第一四七號 三田渡清太宗功德碑址는 功德碑

로 第一五〇號 荒山大捷碑를 荒山大捷碑址로 改稱

(3) 文化財保關係……軍威三尊石佛階段補修件은 古格을 갖은 樣式으로 施工토 辱設計를 變更키로 하되 申請은 許可한

(4) 第八三號 石佛立像補修는 否決